



속리산 정이품송 만아들 나무, 식목일 남산야외식물원에 새 동지

속리산 정이품송 만아들 나무, 식목일 남산야외식물원에 새 동지

우리나라 명품목 중 하나인 속리산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 103호)을 아버지 나무로 한 첫 자식인 장자목(長子木)이 서울 남산 자락에 새로 심어진다.

산림청과 서울시는 오는 4월5일(일, 14:30) 제64회 식목일을 맞아 정광수 산림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명품목 중 하나인 속리산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 장자목(長子木) 한그루를 용산구 한남동 소재 남산 야외식물원내 팔도소나무 숲에 심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남산에 새롭게 동지를 틀게 되는 정이품송 장자목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난 2001년도부터 「명품목 혈통 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였으며, 당시 전국 각지에서 선발한 어머니나무 후보들 중 강원도 삼척 준경 숲의 소나무를 어머니나무로 선발해 혼례식을 치른 바 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후계목을 보존하는 경우 모계 중심의 혈통 보존 방식을 적용하지만 이번에 남산에 심겨지는 정이품송 장자목은 정이품송을 아버지로 한 "세계 최초 부계에 의한 혈통보존" 사업의 성과로 DNA 지문법에 의한 확인 결과, 최종적으로 정이품송 친자임이 확인되었다.

정이품송 장자목은 다른 일반소나무와는 달리 줄기가 곧게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 현재 58그루가 수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 시험포지에서 생육중이며, 그중 특히 생김새가 뛰어난 10그루를 산림청 분양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남산공원, 국회의사당, 독립기념관 등 국내 10곳에만 특별 분양한다.

현재 속리산 정이품송은 솔잎혹파리 등 각종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낙뢰, 돌풍 등으로 가지가 꺾이는 등 수세가 급격히 쇠약하여 올해 중 수세회복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정이품송(正二品松) 》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되며, 나무의 크기는 높이 15m, 가슴 높이의 둘레 4.5m이다. 1464년 조선시대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랫가터에 걸릴까 염려하여 "연(鰲)걸린다"고 말하자 소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 올려 가(御駕)를 무사히 통과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연유로 세조는 이 소나무에 정2품(지금의 장관급)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문 의 : 국립산림과학원 한상익 박사(016-426-6281)

산림청, 5일 관악산서 64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 차장 등 350여명 참여, 이산화탄소 흡수력 좋은 백합/이팝나무 등 조림

산림청은 4월5일 제64회 식목일(4.5)을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전국적으로 242개 기관·단체에서 7만명이 참여해 나무심기 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제64회 식목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511ha(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7만명이 참여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금강소나무 등 경제수와 연산홍, 야생화 등 꽃나무 1천만그루를 심는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2월 하순부터 4월말까지 나무심기 기간 중에 우리나라 전역 21천ha에 3천7백만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특히 경제림육성단지(450개, 292만ha)를 중심으로 목재자원 확보, 소득증대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4.5일 식목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 미성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도시의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상길 산림청 차장, 김효겸 관악구청장, 지역주민, 초·중·고생, 산림관계자 등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3ha에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는데 효과가 큰 백합나무, 이팝나무 등 5종류의 나무 2천3백여 그루를 심는 중앙 식목일 행사를 갖는다.

※백합나무 30년생이 1ha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6.8CO2t로 동일 수령의 소나무(4.2CO2t)에 비해 1.5배 축적은 1.3배 높음

중앙 식목일 행사가 열리는 관악산 생태공원은 지난 70년대 황폐된 서울 주변의 산림을 조기에 녹화하고, 땀감용 나무를 제공하기 위해 심어 놓은 아까시나무가 생장이 쇠퇴하여 이를 베어내고, 탄소흡수 능력이 큰 나무와 꽃·열매 등 도시경관에 좋은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녹색성장을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로 배출된 CO2량은 약 5.8CO2t인데, 나무를 심어 흡수할 수 있는 CO2량은 연간 20.4CO2t (ha당 6.8CO2t, 백합나무 30년생 기준)으로, "정성껏 나무를 심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소중한 행사다.

한편 이날 중앙 식목행사 후 한승수 국무총리 등 행사 참가자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상인들의 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가로수 가지치기 부산물도 녹색자원으로 활용

- 산림청, 8일 대전 보라매공원에서 가로수 부산물 우드칩 가공 시연회 -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도심내 가로수의 가지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우드칩, 톱밥, 펠릿 등의 형태로 현장 가공함으로써 가지치기 부산물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저탄소 녹색자원으로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4.8(수)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서구 보라매 공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가로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수 가지치기 부산물을 현장에서 파쇄하여 우드칩과 톱밥의 형태로 가공처리 하는 현장 시연회를 갖는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대전시에 주요 가로수인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발생한 가지치기 부산물을 이동식 파쇄기를 이용해 우드칩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선보이는 것으로, 가지치기 부산물을 원래의 형태로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는 경우와 파쇄하여 우드칩 형태로 가공했을 때의 부피를 비교해 가로수 부산물의 처리에 따른 운반비와 작업의 용이성도 살펴보는 등 현장토론을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 산물의 처리와 활용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도심의 대기정화, 열섬현상 완화, 소음공해 저감 등 녹지축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로수는 '07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연장 31,030km, 453만본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20여만본이 새로 조성되고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를 맞아 가로수는 도심에서 CO2흡수원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위해 시행되는 가지치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우드칩, 톱밥, 펠릿 등으로 이용할 경우 저탄소 녹색자원으로의 활용도 기대된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고기연 과장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후 발생하는 산물은 현재까지 목재폐기물로 처리되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탄소저장 녹색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 정책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불타는 산림, 애타는 산림청

- 12일 11건 산불발생, 함양산불 아간산불로 이어져 -

일요일인 12일 전국적으로 11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3.2ha의 산림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19:30분 현재 9건의 산불은 모두 진화됐으나 15:20분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으로 완전한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방화선을 구축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오후 6시경 충북 단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방산림청 직원들의 지상진화를 통해 오늘 밤사이 진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산불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입산자 실화와 담뱃불 실화와 같이 사람의 부주의로 대부분 발생하고, 산불진화현장에서는 강한 바람과 메마른 산림이 산불을 확산시키는 등 연일 계속된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산림청은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12일 오후 건조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가운데 영·호남 및 충청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산불이 지난 4.10일 이후 강원, 경기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4.3일~6일까지 발령되었다가 4.12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던 「산불방지 특별 비상경계령」을 오는 26일까지로 다시 한번 추가 연장조치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은 기관장, 부기관장이 관내에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1/2이상의 직원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기동단속 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한 전국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지상 산불감시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산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행

위,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지난 4.3일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이 최초 발령된 이후 4.12일까지 10일 동안 전국에서는 총 149건의 산불이 발생해 280여ha의 산림이 불에 타는 등 같은 기간(4.3~12일) '08년에 비해서는 5배, 최근 10년 평균에 비해서는 2배나 많은 산불이 발생해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광수 산림청장은 12일 아침 일출과 동시에 남원 산불현장을 방문, 진화대책을 논의하고 진화완료 후 재발방지를 위한 진화정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또한 10여일간 하루 10시간 넘게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불진화원기 조종사와 산림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산림청은 "전국이 가물고 산이 메말라 산불위험이 아주 큰 상태"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객의 실수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에서는 절대 화기를 휴대하지도, 사용하지도 말 것과 농촌에서도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 달라"고 간히 당부했다.

특산식물 「미선나무」 전국 최대 군락지 발견

- 미선나무 최초 발견지인 충북 진천에서 발견 -

국립수목원과 진천군은 충청북도 진천에서 한국 특산식물 미선나무 최대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국립수목원 특산식물 연구팀과 진천군에 의해 발견된 미선나무 군락은 개체 수 약 2,000그루, 면적 약 10,000m²이며, 주변 지역에 소규모 3개의 군락이 더 확인되어 국내에서 가장 큰 군락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조사된 우리나라의 미선나무 군락은 충북 괴산군에 3개, 영동군에 2개, 전북 부안군에 3개의 군락이며 모두 수십에서 수백 개체 미만, 면적 2,000~3,000m²의 미만의 작은 군락들로서, 이중 6개 군락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 Nakai)는 몰푸레나무과 미선나무屬(*Abeliophyllum*)의 유일한 1종으로 1917년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에서 정태현 박사와 일본 식물학자 T. Nakai에 의해 처음으로 채집되었으며, 1919년에 「미선나무」로 이름이 붙여져 학계에 보고되었다.

1962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의 군락이 '천연기념물 제14호'로 지정되었으나 불법 채취 등에 의한 자생지 훼손으로 1969년에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었으며, 그 이후 학계에서는 진천군 관내에서 미선나무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미선나무는 개나리와 유사한 높이 1~2m 내외의 나무로서, 종자에 의해 주로 번식 하지만, 주변의 숲이 우거져 그들 때문에 꽃을 피우기 어려우면 휘묻이에 의해 번식하다가 결국 군락 전체가 쇠퇴되어 멸절되는 생태적 매우 취약한 수종이다. 현재 대부분의 군락이 햇볕이 잘 드는 암석지대나 주변의 식생 침입이 어려운 가파른 절벽 등을 피난처 삼아 작은 군락으로 남아 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엔 새로이 발견된 진천군 미선나무 군락은 미선나무의 유전자원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중요하며, 앞으로 진천군청 관계자와 함께 새로운 미선나무 자생군락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생지의 보호와 쇠퇴종인 군락의 생

육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현지 외 보존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립수목원 식물보존과 정재민 (031-540-1054)

5월 5일! 광릉 숲에서 보내는 초대장

- 국립수목원, 어린이날 맞아 특별 무료개방 실시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제87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자연과 어울려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립수목원을 특별 무료 개방하고, 다양한 숲 속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람 대상자 : 어린이(중학생 이하)와 함께 사전예약 한 사람 (선착순 5,000천명 이내)

이번 숲 속 행사는 한지 뜨기, 환경 비누 만들기, 종자관찰 체험, 세밀화전시, "광릉 숲 걷기"를 통한 산림욕, 산림동물원 개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산림박물관 및 전시원 숲 해설가를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호기심 유발 및 오감체험을 통해 우리 식물과 숲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입장을 원하는 사람은 4월 24일(금)부터 5월 4일(월)까지 국립수목원 홈페이지(www.kna.go.kr) 및 ARS(☎031-540-2000)를 통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중학생 이하)와 함께 사전 예약한 5천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광릉 숲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특별 무료 개방을 하게 되었다"며,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경우, 수목원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됨으로 대중교통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주·정차 차량 등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날, 숲으로 초대합니다

- 산림청, 어린이날 기념해 숲체험에서 헬기탑승까지 다채로운 기념행사 마련 -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어린이날을 맞아 국립수목원 무료개방, 산물진화 헬기체험, 숲속교실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우선 국립수목원은 5.5일 사전 예약한 어린이와 동반자에게 광릉숲을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어린이날을 기념해 소년소녀가장, 외국인 근로자 가정 등 소외계층 자녀와 가족 300여명을 초청해 광릉숲 해설 및 숲길 걷기를 비롯한 목공놀이, 손수건 염색 등의 산림문화체험과 산림박물관 관람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갖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5일 오전10~오후5시까지 홍릉수목원을 일 반인 2,000여명에게 무료개방하고 저소득층 어린이와 가족 100여명을 특별 초청해 홍릉수목원 숲해설, 사진전, 숲속음악회, 목공예 체험과 어린이 영화상영 등의 행사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오전9시~오후6시까지 유명산 자

연휴양림 의 34개소 국유자연휴양림을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무료 개방하고 소년소녀가장을 초청해 숲해설 및 숲체험 행사를 갖는다.

이에 앞서 5.4일 난대산림연구소(제주도 소재)에서는 한남시 협림에서 초등학생 100여명을 위한 숲체험 교실을 열어 '숲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글짓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어린이에 대한 시상도 진행한다. 또한 같은 날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관악산 산림욕장에서 다람쥐 보릿고개 도토리 찾기, 은행 목걸이 만들기, 꽃과 곤충 관찰하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산림체험행사를 갖는다. 양주국유림관리소에서도 숲해설 및 보물찾기, 퀴즈 맞추기 등 숲속교실을 열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주산림항공관리소(5.6), 진천산림항공관리소(5.4), 강릉산림항공관리소(5.4)에서는 어린이날을 전후해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산물진화 물투하 시범, 헬기레펠, 인명구조 체험 등 다채로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갖는다.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 20일 개원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경기도 양평에 조성해온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 이 오는 5월2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개원식에는 사단법인 수목장실천회 회원, 양평군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의 개원을 축하할 예정이며, 수목장 거행 및 추모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아 왔으며, 실제 하늘숲추모원을 이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개원을 기다려 온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4.30일부터 5.17일까지 사망자 또는 이장(移葬)을 목적으로 하거나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에 한해 사용신청 접수를 받아 본 결과 현장방문 및 전화 상담을 해온 국민이 1,700여명에 달했으며, 이중 150여명이 사용신청을 접수할 정도로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하늘숲추모원은 사망한 이후에만 유족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고 이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 등의 경우에는 입증서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이 허용된다.

하늘숲추모원은 '07.5~'09.4월까지 우리나라 산림에 적합한 수목장 모델을 개발, 보급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안내시설 및 안전·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체계적인 운영 및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추모목 DB와 운영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계약이 된 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모목 등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수목장이 건전한 장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수목장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이번에 개원하는 하늘숲추모원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설 수목장림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하늘숲추모원 사용신청 접수 및 사용 계약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 및 숲에 On 인터넷 사이트(www.foreston.go.kr, 수목장림)를 참고하거나 하늘숲추모원 관리사무소(전화 031-775-6637~8)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임용진 주무관(042-481-8877)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식물·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매립장이나 유휴지 등이 생명 탄생의산실과 식물생태·환경의 산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김관중 주무관(042-481-4249)

쓰레기 매립장이 산림생태의 보고로

- 산림청, 수목원 / 생태숲 2010년 신규 조성지 18개소 선정 -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오는 2010년에 수목원과 생태숲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 등 수목원 조성 대상지 10개소와 경남 함양군 괴관산 등 생태숲 조성지 8개소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확정된 수목원, 생태숲 조성 대상지는 22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지난 4월~5월에 현장실사와 사업계획서 검토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 타당성 심사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 부지확보 여부, 사업 타당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 중 눈길을 끄는 곳은, 부산광역시 가 쓰레기매립지에 수목원을 조성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치유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수목원」과 1900년대 화진밭 개간으로 산림이 훼손되었던 산지에 숲 생태복원·보전 계획을 제시한 경남 함양군의 「괴관산생태숲」, 그리고 대학·지방자치단체 간 산림생태계 보전·연구의 협력네트워크 방안을 제시한 경남 진주시의 「진주산업대학교 학교림 생태숲」 조성사업 등이다.

◇ 해운대수목원 대상지 : 면적 66ha, 쓰레기매립기간 '87~'93

산림청은 2010년 이후에는 수목원 61개소, 생태숲 45개소 등 전국에 총 106개소의 녹색생활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생물자원의 현지내·외 보전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고, 국민소득수준 향상 및 주 5일 근무 등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식물·생태환경에 대한 국민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수목원·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열기는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수목원의 사례와 같이 쓰레기매립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지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쓰레기매립장 활용의 성공사례로 대구광역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쓰레기매립장 수목원 조성에 성공하여 2002에 개장, 교육·환경·식물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뒤를 이어 2009년부터 광주광역시도 쓰레기매립장 등의 주변 토지를 활용하여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는 사례 등이 손꼽히고 있다.

◇ 대구수목원 : 면적(24ha), 쓰레기매립기간('86~'90), 조성기간('97~'02), 연이용객(110만명), 식물종 보유(1,750종)

◇ 광주수목원 : 면적(30ha), 쓰레기매립기간('05~'35), 조성기간('09~'12)

2009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근로자 모집공고

부여국유림관리소 공고 제 2009-21호

2009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근로자 모집공고

부여국유림관리소는 2009년 공공산림가꾸기 참여근로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부여국유림관리소장

1. 사업추진 개요

가. 사업명 : 2009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나. 사업기간 : 2009년 6월 ~ 12월(사업종료일까지)

※ 관리소 사정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장 :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내 국유림

라. 대상사업 : 산림수련관 주변 숲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2. 모집인원 : 00명

가. 자격기준

○ 2009년 1월 1일 이전 태안군 근흥면 거주자

※ 사업장 위치 및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지역 제한

3. 신청 및 선발

가.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나. 접수기간 : 2009. 6. 8(월) ~ 2009. 6. 10(수) 18:00 까지

다.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한함.

라. 접수장소 및 문의

○ 접수장소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신2-9번지

신진도 산림수련관 관리사무소

○ 문의전화 : 041-830-5041(부여국유림관리소 경영조정계)

041-675-1971(신진도 산림수련관)

마.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 비치 또는 서식 다운로드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및 국민연금수급 증명서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유무 등 판단자료

○ 주민등록등본(세대주·부양가족 확인용) 및 구직등록증 각 1부

○ 재산세 납부확인서 1부

○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림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 1차 서류전형에 합격자에 한해 기초건강진단서 제출바. 선발방법 및 발표

○ 1차 서류심사 : 2009년 6월 11일 발표 (개별 유선통보)

○ 2차 면접 : 2009년 6월 12일(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발자 확정 발표 : 2009년 6월 12일(개별 유선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숲가꾸기 근로자]

○자격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나이제한)
 - ※ 다만, 연령 초과자는 면접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역 가능

○선발기준(계획된 투입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숲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무급휴직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자
-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125천원 이하의 자나 그 배우자
 - ※ 사업의 효율성과 현장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퇴직자 선발 시는 예외(선발인원의 10%)
- 기존 공공근로 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기관에서 기업참여 태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

5. 임 금

- 일반인부 : 1일 45,000원(부대비 5,000원 포함)
- 기술인부 : 1일 50,000원(기술수당 5,000원 + 부대비 5,000원 포함)

- 지급대상

- 임업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임업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 임업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의 기술지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단, 기술인부가 기술이 필요한 작업을 기피하거나 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기술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주차 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음)

○지급방법 : 월급으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

-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가입 조치
 -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6. 근로조건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원칙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
 - ※ 주 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있거나 우천 등 기상여건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그 주의 당해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월 1회 연간 유급휴일(월차 개념) 부여
-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 임금 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당 미지급

7. 응모자 유의사항

- 서류제출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의 부담이며, 서류는 일체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허위 기재 시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가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 상습적인 무단결근, 지각의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09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추진지침」에 따릅니다.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공모요강

- 6월30일까지 공모-

“지구를 지키는 초록물결, 10번째 아름다운 숲을 찾습니다”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는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유한킴벌리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숲, 꼭 지켜야 할 우리 숲들을 찾아내어 최고의 명품 숲을 가립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숲과 나무를 사랑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 전문 심사위원단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아름다운 숲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숲에는 숨겨진 보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길가에, 혹은 학교와 산간오지에서 아름다운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숲이 주는 혜택을 모두 나열하지 않더라도 숲은 그 존재 이 유만으로도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을 공유하고, 숲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전하는 시민참여의 장입니다.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참가분야 : 아름다운 마을숲, 아름다운 숲길, 아름다운 천년의 숲, 아름다운 학교숲, 아름다운 숲지기
- 참가자격 : 숲과 나무를 사랑하는 개인, 단체, 기관
- 응모방법 : 생명의숲 사무처로 우편 발송 또는 웹하드(www.webhard.co.kr) 올리기전용 폴더에 업로드함.
- 응모기간 : 2009년 6월 1일(월) - 2009년 6월 30일(화) (마감 날짜 우편 소인 유효)
- 최종발표 및 시상식
 - 최종발표 및 시상식 : 2009년 9월 말,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내 야외무대(예정)